



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
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

보도자료

2024년 5월 23일 배포

총 3쪽(붙임 1쪽 포함)

담당부서 :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

연구조사부장 이병규(063-530-9430) / 담당자 전동근(063-530-9431)

이만열 前 위원장, 동학농민혁명대상 상금 2,000만원 기념재단에 전액 기부 -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 확산을 위해 써달라 -

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(신순철 이사장, 이하 기념재단)은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정읍시로부터 수상한 동학농민혁명대상 상금 2,000만원 전액을 기념재단에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.

정읍시는 지난 4월 동학농민혁명을 세계사적 혁명으로 위상을 높인 공적으로 이만열 전 위원장을 동학농민혁명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, 5월 11일 개최된 동학농민혁명기념제 행사에서 시상식과 상금 2,000만원을 전달하였다.

이만열 전 위원장은 숙명여대 한국사학과 교수로 30년 이상 재직하며 대한민국 역사학계의 대표적인 석학이자 실천하는 지성인의 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.

특히 이만열 전 위원장은 2005년부터 <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>의 결정 및 등록심사분과위원장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,644명과 유족 10,567명을 결정·등록하였으며, 2015년부터는 <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> 위원장을 맡아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.

이만열 전 위원장은 기부 전달식에서 기념재단 산하의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연구비로 지정하여 상금 전액을 기부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며, “기념재단이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전국적으로,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주역이 되어, 동학농민혁명이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애써

달라”고 당부했다.

이에 기념재단 신순철 이사장은 “선생님의 가르침과 고귀한 뜻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.”고 화답했다.

붙임 : 관련 이미지 1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이병규(☎ 063-530-9430),
연구조사부 전동근(☎ 063-530-94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